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통구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시였다

체육교류를 위해 우리 나라를 방문한 미국 NBA(전국통구협회) 이전 선수들로 무어진 명수팀과 우리 혼불팀 선수들의 통구경기가 8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지난해에 이채롭고 흥미진진한 경기를 벌려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두 나라 선수들의 통구경기를 보기 위해 체육애호가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경기장소로 모여 왔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과 무관부부들,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평양체육관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미국 NBA 이전 선수 데니스 로드맨이 뜨겁게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통구선수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시고 이번 경기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목을 도모하는 훌륭한 계기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흡모의 마음을 담아 데니스 로드맨은 다시 만나뵙게 되여 정말 기쁘고 눈물이 난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를 조직한것은 존경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도 두 나라 체육인들사이의 교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의 마음을 담아 데니스 로드맨은 원수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삼가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과 선수들은 감격과 환희에 넘쳐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며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러치였다.

경기에 앞서 발언한 데니스 로드맨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조선에 왔다고 하면서 체류기간 조선인민이 원수님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경모의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 관람자들을 감동시켰다.

이날 경기 두회전은 우리 혼불팀과 미

국 NBA 명수팀 사이에, 다음 두회전은

두 나라 선수들의 혼합경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는 시작부터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열기속에 벌어졌다.

상대방의 전술적의도와 경기방식을 파악하며 양팀 선수들은 빠른 공격과 끈밀돌파, 먼거리던져넣기 등으로 득점을 높이였다.

이름난 통구선수였던 데니스 로드맨

도 출전하여 경기분위기를 돋구었다.

관람자들은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발휘하며 경기장을 종횡무진하는 선수들을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백팀과 룩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혼합경기는 관람자들의 홍분을 더욱 자아냈다.

선수들은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멋진 경기 장면들을 펼쳐보였다.

두 팀 선수들은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꽂아넣기를 비롯한 다양한 특기동작들로 련속 보기 좋게 득점하였다.

철저한 대인방어와 역습속공으로 형세를 부단히 전환시키며 공방전을 벌린 경기들에서 우리 팀이 미국팀을 47:39로, 백팀이 룩팀을 63:54로 이겼다.

두 팀 선수들에게 기념컵과 메달들이 수여되었다.

경기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어 경기에 참가한 두 팀 선수들을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훌륭한 경기를 보았다고 하시면서 미국통구선수들이 체류기간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국통구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세로운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의 여유로움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수산물랭동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부대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애로를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과감히 뿐고나가며 짧은 기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에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이 앞으로 큰 은을 내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수산사업소들에서 더 많은 물고

기를 잡는것과 함께 보관과 가공에 필요 한 현대적인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인민군 대안의 수산부문에서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마련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당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갈것을 호소하였다고 하시면서 인민군 대안의 수산부문에서 일어난 혁신의 불길이 전국의 수산부문에서도 세차게 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물고기잡이조건은 인민군대의 수산사업소와 사회의 수산사업소가 다를바 없지만 물고기잡이 실적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경제부문 일군들이 조건타발을 앞세우면서 인민군대처럼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리지 못했기때문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려울

없이 혁명의 계승자, 혁명의 끝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하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

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번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모든 지원관들과 일군들이 군인들, 인민들의 요구와 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혼신하고 노력함으로써 올해에 그 어

디서나 희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오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를 맞으며 신년사를 하시였다. 뜻깊은 사변들과 기적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에 대한 총화와 올해에 나서는 과업에 대해 상세히 밝히시는 그이의 열정에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이 후더운 마음으로 다시금 절감한 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행운에 대한 생각이었다.

출중한 자질과 비범한 령도실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이끄시는 그이의 위인상은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흡모를 끌어들이고자 했고 그이의 위인상을 구가하는 『발걸음』과 같은 송가도 태어났다.

지난해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다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되는 것이 원수님이 뛰어난 천품과 령도 실력이다.

승마구락부를 돌아본 재종, 재로, 재일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찍부터 승마술에 능한 원수님이 시기때문에 그분의 기질은 단숨에 의기적을 창조하는 공격적인 기질이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승마 구락부 건설도 밟기하고 구체적인 승마장이 훌륭히 건설되게 됐다』고 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원수님의 위인적 품모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 속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이께서는 장군님과 함께 애국의 길을 걸으시면서 선군의 자속을 뚜렷이 새기시였고 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도 이

# 어제를 돌아보고 래일을 내다보며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를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 102(2013)년 9월

어오셨다. 그 날에 사람들 속에서는 다등다재하고 평도적 실력을 출중하신 그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장군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마음 속 매혹과 존경심이 분출됐고 그이의 위인상을 구가하는 『발걸음』과 같은 송가도 태어났다.

지난해에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다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감동되는 것이 원수님이 뛰어난 천품과 령도 실력이다.

승마구락부를 돌아본 재종, 재로, 재일동포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찍부터 승마술에 능한 원수님이 시기때문에 그분의 기질은 단숨에 의기적을 창조하는 공격적인 기질이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승마

구락부 건설도 밟기하고 구체적인 승마장이 훌륭히 건설되게 됐다』고 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자기 실력으로

혁명과 건설의 전반 사업을 쉽바이들이게 되어 있다고 위대한 혁명을 기록할 수 있으며 따라서 누군가 그를 따르고 그의 지도를 해박한 실력과 풍부한 자질을

은 『김정은령도자는 통구를 비롯하여 모든 종목의 체육을 사랑하신다. 조선은 축구열풍이 강

한 나라다.』라고 소감을 토로하였다.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 는 군령도로부터 경제와 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구현하는 등 전반적 국가건설 사업을 혁명하게 이끄시는 실력과 혁명의 위대한 정치가를 령도자로 모신 것은 우리 민족이 태어난 행운이고 무상의 영광이다. 그 어떤 반공화국적 대세력의 침략공세에도 끄떡없는 불패의 군력에서, 룽라이민 유원지와 마식령스키장, 문수물놀이장, 인민극장, 은하과학자거리, 창전거리와 같은 수많은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희한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에 대해 가슴뜨겁게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이의 위인상에 대해 로씨야신문 『울라지보스또크』는 『조선인민의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진두에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지위와 다양 면적인 실적, 특출한 령도 실력과 숭고한 인민적 덕망을 지닌 김정은령도자가 계신다. 그이의 령도 따라 조선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중국신문 『국제선구자안내보』도 『김정은령도자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지도자로서 조선이라는 신비한 나라에 새로운 견해와 밝은 빛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하였다.

희망찬 새해가 달을 올린 오늘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령도자를 따라 지나온 잊을 수 없는 어제를 돌아보며 광명한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1월의 날과 날을 보내고 있다. 민족의 마음속에 감회와 희망이 큰 뮤다른 1월이다.

본사기자 김경철

##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님 축복하신다

리준식

단군조선시원의 백두산  
선군혁명시원의 백두산  
통일조선시원의 백두산  
그 담력과 용맹  
순결과 열정을 그대로 닦은  
김정은 최고사령관동지 계서  
겨베는 자주통일, 강성조선  
세계는 호혜, 평등, 정의의 꿈을 꾸마다

수령결사옹위  
이를 조국의 목숨으로 알고  
수령유일중심의 일심단결  
이를 민족의 운명으로 새긴  
백두산 선군조선이다

세상 바람이 어떻게 불든  
통일조선의 눈부신 미래  
병진로선의 찬란한 목표

## 우리의 희망 김정은동지

리준식

조선은 백두산장군 당신을 따라  
정의로운 자주의 빛을 뿌려갑니다

인류의 미래  
반제의 승리  
영원무궁 절쳐갈  
민민의 희망 김정은동지  
세계는 인류의 태양 당신과 함께  
반제반전평화의 길로 나아갑니다  
(필자는 조국통일법민족련합  
유럽지역본부 의장임)

나는 고국을 자주 드나들며 기업을 하는 해외동포의 한 사람이다.  
고국을 래왕할 때마다

다 애국의 마음도 커지고 조선민족의 일원된 궁지로 가슴뿌듯이 체험하고 있다.

특히 공화국을 아홉번째로 찾아왔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과 석 달만에 고국땅을 다시 찾는 나에게 물라보게 달라진 고국의 모습이 안겨왔던 것이다.

평양으로 들어서는데 범듯하게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의 이채로운 풍경이 안겨오고 룽흥네거리에는 하늘높이 쌓기 등을 이루듯 솟아난 교육자 살림집이 우리를 반겨주는 듯 싶었다. 그런가하면 건설이 한창이던 대규모의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이 완공되어 사람들이 즐겁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 서처럼 유한계층이 아니라는 평범한 인민들이 리용할 미림승

마구락부가 문을 열어 사람들에게 생활의 활力과 량만을 더해주고 있었다.

매우 짧은 기간에 방대한 규모의 건설대상들을 하나의 손색도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도 문수물놀이장에 가보았는데 설계가 깨끗하고 시공이 특이하며 어느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이 완벽하였으며 미림승마구락부에 가서는 처음으로 말을 타며 한껏 웃어도 보았다. 작품이나 전쟁사화들에 나오는 의기양양한 개선장군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과도 같은 체험인듯 싶었다.

양동하는 짙은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이폐부에 와닿았다.

예로부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만 공화국이 이렇게 하루가 둘로 보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말씀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경제강국건설에 매진하는 정든 고국인민들의 힘찬 숨결에 호흡을 함께 하며 나의 노력과 지성을 다할 결심을 굳은는 바탕이다.

가을 일떠세우는 고국에 조금이나마 보탬하고 싶은 것이다.

조선민족의 일원된 궁지로 같은 고국에 이적은 힘이나마 바치고 싶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우리 동포기업가들의 하나같은 마음이다.

중국 절강성에서 사는 한동포기업가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고국을 방문하고나서는 서방의 선전파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면서 고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미력하게 나마 기여하겠다는 마음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 따라 경제강국건설에 매진하는 정든 고국인민들의 힘찬 숨결에 호흡을 함께 하며 나의 노력과 지성을 다할 결심을 굳은는 바탕이다.

김정승(중국단동조선족  
기업가협회 부회장)

## 인민의 안전을 위해 살도도 먼저 다보시며

리준식

흰눈덮힌 마식령의 천연산 악지대에 세계 일류급의 스키장이 훌륭히 꾸려져 건설의 대전성기가 멀쳐진 2013년을 뜻깊게 마감하였다.

인적드문 마식령지구에 스키장이 일떠선 것만도 경이적이지만 스키장의 훌륭우에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셨다.

온 한 해 은하과학자거리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

한 홀륭한 창조물들이 인민들에게 차례지도록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그이께서는 희망님친 새해에 더 큰 기쁨이 인민들에게 가닿게 하시려고 한해의 마지막 날까지 현신의 길을 걸고 걸으신 것이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이용하게 될 삽도를 먼저 태워 마식령의 정점인 대화봉에 까지 오르시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였다.

지난해 12월 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셨다.

우리 인민들이 먼 후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개

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문명

을 찾으신 원수님의 애민현

신의 자욱이 마식령의 산발

을 찾고 찾으신 원수님이 시

으며 개장을 앞둔 무렵 다시금 찾으신 원수님의 애민현신의 자욱이 마식령의 산발들에 새겨져 스키장의 겨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만 느껴지는 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한 언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식령스키장 현지지도소식을 전하면서 『험준한 산악지형과 폭우, 무더위, 혹한 국제사회 암박 등 악조건을 이겨내고 보란듯이 낸내완공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에 남기신 인민사랑의 첫 자욱은 마침내 개장의 날을 안이웠고 새해의 첫기슭에서 사람들이 생기와 활력에 넘쳐 겨울을 즐기는 활무대가 펼쳐지게 한 것이다.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오래되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명당자리에 터전을 정해주시고 인민들이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경치도 부감할 수 있는 멋쟁이스키장으로 완공하도록 하시였다.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오래되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명당자리에 터전을 정해주시고 인민들이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경치도 부감할 수 있는 멋쟁이스키장으로 완공하도록 하시였다.

스키를 탈 수 있는 기간이 오래되고 교통조건도 편리한 명당자리에 터전을 정해주시고 인민들이 마음껏 체력도 단련하고 자연경치도 부감할 수 있는 멋쟁이스키장으로 완공하도록 하시였다.

지난해 12월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건설부문에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홀륭한 진축물들과 인민들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을 많이 하여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지난해 12월 조국력사에 일찌기 있어 본적 없는 건설부문 일군에 강습을 열도록 한 해가 다 저물어가니는 12월 말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신데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건설의 최전성기를 새로운 번영기로 이어나갈 때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는 그이의 거룩한 모습을 빛내며 온 나라 인민은 2014년에 펼쳐질 건설의 새

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 청춘조국송가

축복받은 선군조국의 대지우에 새해의 태양이 찬란히 빛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새운 희망과 원대한 포부로 가슴들끓는 이 뜻깊은 시각 우리 모두는 램홍색 공화국기 창공에 펼칠 휘날리는 내 조국의 존엄높고 자랑스러운 위용을 삼가 우러른다.

너무도 몰라보게 달라졌고 너무도 눈부시게 비약하는 우리 조국이다. 분명 그 땅, 그 하늘, 그 사람들이지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은 또 다른 래일은 무슨 사변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게 짚어지고 솟구치는 내 조국이다.

평범한 연구사, 고원들을 하늘높이 떠올린 과학자거리, 교육자 살림집들에서 세우를 맞는 경격과 홍분이 해빛밖은 창문너머 뜯겁게 넘쳐난다. 현대적 건축미를 자랑하는 문수물들이 장과 말발굽소리 경쾌한 최상수준의 미림승마 구락부 등 각종 체육문화시설들에서 짚음을 즐기며 뿐어울리는 량만적인 웃음소리가 한겨울의 추위에서 녹인다.

발길질하는 곳마다 인민사람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요, 듣는 소식마다 사회주의 문명국을 구가하는 기쁨인데 설달그믐날에는 이 하늘아래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마식령스키장 개장식까지 펼쳐져 세상을 다시 한번 깜짝 놀래웠으니 이 아니 기적인가.

말그대로 약동하는 짚음이 하늘에 달고 넘치는 힘과 기상으로 무섭게 일어나는 선군의 내 조국을 다름아닌 청춘조국이라고 오늘 우리는 당당히 말한다. 청춘이여, 너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청춘을 사랑하는가.

청춘을 불러 정의와 진리의 상징이라 한다. 청춘은 사나운 폭풍도 헤가르는 용맹의 나래라고 노래한다.

그 어떤 광풍도 길들이고 온갖 유혹도 단호히 불살라버리는 자랑높은 경상은 청춘의 가슴에서 더욱 용솟음친다.

사랑과 열정, 용감성과 패기가 퍼려운 가슴에 넘치며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 왕성한 힘으로 천리 날마다 단숨에 우수고 이득한 산도 통제로 떠올기는 무한대운 없는 시절이 다름아닌 청춘이다.

미적지근한 짚을 풀어하고 안온한 생활을 증오하며 순간마다 새로운 것을 열망하여 높이 날아오르는 그 자체는 열마음하고 아름다운가.

청춘이 아름답다 한다. 새벽노을처럼 심상하고 순결무구하며 찬란한 리상과 꿈으로 무한대한 미래를 펼치는 청춘, 그들의 눈으로 보는 세계는 오늘들이 아니라 레일이다. 잠을 자도 꿈을

꾸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그리며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위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헤쳐간다.

청춘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짚음이 있어 혁사는 더욱 힘차게 출달음친다.

바로 이런 짚음의 약동, 쉬임없이 솟구치는 거세찬 혜력이 오늘 내 조국땅을 떠맡들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뿌듯한 궁지인가.

보라. 옛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지만 한두해 사이에 10년, 100년을 주름잡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국은 해를 두고 년차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시간당으로, 초고속의 우주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여 차차원적으로 전변되고 있으니 그 폭과 심도를 파악 무엇으로 젤수 있겠는가.

참으로 수백수천년 땅속에서 끌어온 용암의 분출인양 다지고 다져온 우리 힘의 총체가 무섭게 용을 쓰며 폭발하고 있다.

용솟음치는 짚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세, 이런 열정을 뿐어낼 수 있겠는가.

청춘의 순결한 넋과 지혜, 거세찬 정열이 천만군민의 정신과 신념으로 승화되고 짚음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힘이 강성국가건설의 활력소로 되고 있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마움과 경포의 정을 암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삼아 우러른다.

어버이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잊고 뼈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그 넓으신 가슴에 품어안으시고 따뜻한 정과 산악같은 신념,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견디기 어려워했던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숭엄히 새겨진 우리의 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짚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를 지우는 무한대한 격정속에 체험하고 있다.

그이의 불라는 짚음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청춘의 기상과 넋으로 혁사를 전진시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맥맥히 이어졌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대기우에 새겨진 청춘이란 고귀한 이름앞에, 그 영광스러운 전통에 삼아 머리숙이자.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그 뜻을 따르면 민족의 앞길 열리고 그 말씀 따르면 통일의 길이 환히 열리려니

민족의 운명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도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온 겨레가 심장에 새겨안는 신년사의 글발발이여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이 세상 한끝까지 그 빛발 눈부시다 그 빛발 있어 통일의 앞날은 창창하다 통일의 태양 삼천리를 비친다!

20년 김태룡

새해의 이 아침 삼천리 내 조국을 더 밝게 비쳐주는 태양이시다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내주시며 뜻깊은 신년사를 하시는 원수님 백두에서 하나님까지

도쿄, 심양... 세상 그 어디에 서나 한 날 한시에 받아안은 견격과 격정이여

그이 아닌 그 누가 마디마다 심장을 울리고 구절구절 민족에 불타오르는 통일에 국의 진리 새겨줄수 있으랴

그이 아닌 그 누가 겨례의 앞길 휘황히 밝혀줄수 있으랴

통일을 생각할 때 겨례에 마음속에 연제나 뜨겁게 송엄히 새겨지는 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

《김일성 1994. 7. 7.》

통일을 두고 그리고 마음씨오신 수령님 한생 다 말해주는 이 친필

통일의 날을 확신하시며 해빛같이 지으시던 그 미소가 뜨겁게 어려 눈부신 글발

한자한자 더듬어불수록

꾸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그리며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위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헤쳐간다.

청춘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짚음이 있어 혁사는 더욱 힘차게 출달음친다.

바로 이런 짚음의 약동, 쉬임없이 솟구치는 거세찬 혜력이 오늘 내 조국땅을 떠맡들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뿌듯한 궁지인가.

보라. 옛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지만 한두해 사이에 10년, 100년을 주름잡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국은 해를 두고 년차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시간당으로, 초고속의 우주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여 차차원적으로 전변되고 있으니 그 폭과 심도를 파악 무엇으로 젤수 있겠는가.

참으로 수백수천년 땅속에서 끌어온 용암의 분출인양 다지고 다져온 우리 힘의 총체가 무섭게 용을 쓰며 폭발하고 있다.

용솟음치는 짚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세, 이런 열정을 뿐어낼 수 있겠는가.

청춘의 순결한 넋과 지혜, 거세찬 정열이 천만군민의 정신과 신념으로 승화되고 짚음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힘이 강성국가건설의 활력소로 되고 있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마움과 경포의 정을 암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삼아 우러른다.

어버이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잊고 뼈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그 넓으신 가슴에 품어안으시고 따뜻한 정과 산악같은 신념,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견디기 어려워했던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숭엄히 새겨진 우리의 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짚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를 지우는 무한대한 격정속에 체험하고 있다.

그이의 불라는 짚음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청춘의 기상과 넋으로 혁사를 전진시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맥맥히 이어졌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대기우에 새겨진 청춘이란 고귀한 이름앞에, 그 영광스러운 전통에 삼아 머리숙이자.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그 뜻을 따르면 민족의 앞길 열리고 그 말씀 따르면 통일의 길이 환히 열리려니

민족의 운명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도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온 겨레가 심장에 새겨안는 신년사의 글발발이여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이 세상 한끝까지 그 빛발 눈부시다 그 빛발 있어 통일의 앞날은 창창하다 통일의 태양 삼천리를 비친다!

20년 김태룡

새해의 이 아침 삼천리 내 조국을 더 밝게 비쳐주는 태양이시다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내주시며 뜻깊은 신년사를 하시는 원수님 백두에서 하나님까지

도쿄, 심양... 세상 그 어디에 서나 한 날 한시에 받아안은 견격과 격정이여

그이 아닌 그 누가 마디마다 심장을 울리고 구절구절 민족에 불타오르는 통일에 국의 진리 새겨줄수 있으랴

그이 아닌 그 누가 겨례의 앞길 휘황히 밝혀줄수 있으랴

통일을 생각할 때 겨례에 마음속에 연제나 뜨겁게 송엄히 새겨지는 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

《김일성 1994. 7. 7.》

통일을 두고 그리고 마음씨오신 수령님 한생 다 말해주는 이 친필

통일의 날을 확신하시며 해빛같이 지으시던 그 미소가 뜨겁게 어려 눈부신 글발

한자한자 더듬어불수록

꾸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래일을 그리며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위해 고난과 시련도 두려움없이 헤쳐간다.

청춘이 있어 세상이 달라지고 짚음이 있어 혁사는 더욱 힘차게 출달음친다.

바로 이런 짚음의 약동, 쉬임없이 솟구치는 거세찬 혜력이 오늘 내 조국땅을 떠맡들고 이끌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뿌듯한 궁지인가.

보라. 옛 사람들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다지만 한두해 사이에 10년, 100년을 주름잡고 천지개벽, 천도개벽을 이루는 우리 나라이다.

우리 조국은 해를 두고 년차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초당, 시간당으로, 초고속의 우주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여 차차원적으로 전변되고 있으니 그 폭과 심도를 파악 무엇으로 젤수 있겠는가.

참으로 수백수천년 땅속에서 끌어온 용암의 분출인양 다지고 다져온 우리 힘의 총체가 무섭게 용을 쓰며 폭발하고 있다.

용솟음치는 짚음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기세, 이런 열정을 뿐어낼 수 있겠는가.

청춘의 순결한 넋과 지혜, 거세찬 정열이 천만군민의 정신과 신념으로 승화되고 짚음이 발산하는 무한대한 힘이 강성국가건설의 활력소로 되고 있는 선군조선의 놀라운 비약앞에서 우리는 한없는 고마움과 경포의 정을 암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삼아 우러른다.

어버이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잊고 뼈눈물을 흘리는 우리 인민을 그 넓으신 가슴에 품어안으시고 따뜻한 정과 산악같은 신념, 불굴의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견디기 어려워했던 크나큰 슬픔과 비애의 언덕에서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으로 숭엄히 새겨진 우리의 최고령도자께서 지니신 짚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운인가를 지우는 무한대한 격정속에 체험하고 있다.

그이의 불라는 짚음과 더불어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장장 수십년세월 청춘의 기상과 넋으로 혁사를 전진시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온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맥맥히 이어졌다.

그대가 누구이든 우리 조국의 성스러운 대기우에 새겨진 청춘이란 고귀한 이름앞에, 그 영광스러운 전통에 삼아 머리숙이자.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그 뜻을 따르면 민족의 앞길 열리고 그 말씀 따르면 통일의 길이 환히 열리려니

민족의 운명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도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온 겨레가 심장에 새겨안는 신년사의 글발발이여

우리라는 거례의 앞길에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정은원수님

이 세상 한끝까지 그 빛발 눈부시다 그 빛발 있어 통일의 앞날은 창창하다 통일의 태양 삼천리를 비친다!

20년 김태룡

새해의 이 아침 삼천리 내 조국을 더 밝게 비쳐주는 태양이시다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내주시며 뜻깊은 신년사를 하시는 원수님 백두에서 하나님까지

도쿄, 심양... 세상 그 어디에 서나 한 날 한시에 받아안은 견격과 격정이여

그이 아닌 그 누가 마디마다 심장을 울리고 구절구절 민족에 불타오르는 통일에 국의 진리 새겨줄수 있으랴

그이 아닌 그 누가 겨례의 앞길 휘황히 밝혀줄수 있으랴

통일을 생각할 때 겨례에 마음속에 연제나 뜨겁게 송엄히 새겨지는 아, 판문점의 통일친필비

《김일성 1994. 7. 7.》

통일을 두고 그리고 마음씨오신 수령님 한생 다 말해주는 이 친필

#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자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은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주체 103(2014)년 신년사 중에서)

## 조국통일성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울해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혁사적 문전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돐이 되는 해이다.

이 뜻깊은 해에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발들어 북남관계와 조국통일 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안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조국통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념원이고 유훈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 일성 주석께서와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 온갖 헌신과 헌혈을 다 바치시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셨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가 분열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파업으로 내세우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혁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 소집하여 사대매국세

『김일성  
1994. 7. 7.』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각에 남기신 이 친필에는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오신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 위인의 불멸의 한생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

력의 민족분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 이시고 1970년대에 격폐상태에 있던 북파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혁사적인 7.4공동성명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놓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족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

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절대성의 조국통일의 3대현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3대 현장을 제시하심으로서 조국통일 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적이 없으셨다.

『김일성  
1994. 7. 7.』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각에 남기신 이 친필에는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오신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 위인의 불멸의 한생이 뜨겁게 어리여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

일유훈을 기어이 관찰하실 불리는 일념을 안으시고 통일위업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였다.

돌이켜 보면 주체 85(1996)년 11월 24일, 혁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통일친필비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멈추시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반들어 기어이 조국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새 세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나선다고 해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끌까지 관찰하여 겨레에게 하루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철의 의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으로 만드시려는 확고한 결심이 맵박하고 있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작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칠지히 관찰하자』,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루하라』를 발표하시여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고려민족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조국통일 3대 현장으로 정식화해주시고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시여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주시였다.

우리 겨레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 성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통일위업의 전환적 국면을 안아오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주체 89(2000)년 6월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혁사적인 북남수뇌 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새 세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을 멈추시고 해도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끌까지 관찰하여 겨레에게 하루

빨리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는 철의 의지, 분렬의 상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으로 만드시려는 확고한 결심이 맵박하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한평생 걸으시었던 선군길을 이어가시며 내외분열주의 호전세력의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조국통일에 대한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자주통일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그이께서는 이번의 혁사적인 신년사에서도 민족분열 69년이 되는 이해에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밝은 앞길을 열어주시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사적인 신년사를 받들고 새해에 조국통일 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삼천리 강산을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된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본사기자 최광혁



##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 철저히 실 때

\*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장 심영철과 기자가 나눈 대담 \*

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받아온 온 겨레는 지금 커다란 환희와 기쁨으로 휩싸여 주었다.

혁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리였다. 남조선에서도 지난 시기 일부 통일운동단체들에서 별리던 조국통일 운동에 동동자, 농민, 예술인, 종교인, 정치인들이 대중적으로 참가하여 통일열의를 드높여왔다. 평양과 서울, 백두산과 금강산을 비롯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터지는 『우리는 하나다!』, 『조국통일!』의 구호가 세차게 울려나오고 통일운동세력의 현대와 단합이 강화되었다. 말그대로 7천만이 통일운동의 주인이 되어 목소리를 합치고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온 격동의 나날들이였다. 그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이 추동되고 6.15통일시대는 앞으로 전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것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는 앙팎의 분렬주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대전군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남조선의 친미사대국 노들은 외세와 애합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북

침을 노린 혁전쟁 공격연습을 매일 같이 벌려놓았으며 유엔을 비롯

한 국제무대에서 까지 동족에 대한 비방과 모해증상에 혈안이 되어 날뛰었다.

남조선에서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자주권을 요구하는 모든 통일에 국세력이 『종북세력 척결』 광란극속에 박해와 탄압을 받고 있으며 해마다 열리었던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여려해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반통일세력의 도전에 대처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인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야 한다.

민족적 단결은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위력으로 자주통일의 흐름을 열어나가기 위한 군단을 보았다.

흘어지면 폐하고 풍치면 이기는 것은 혁사의 교훈이며 이는 조국통일운동에서도 결코 폐와 흐름으로 될 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거족적으로 벌려나야 한다.

참된 애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투쟁의 주체라는 자각을 안고 런던 대회를 강화하여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벌려나감으로써 이 땅에 자주통일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는 통일을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대처하는 경로로운 사변들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신년사에 대한 내외의 기대를 잘 보여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나라는 통일을 오직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대처하는 경로로운 사변들이

이루어졌다.

수십년간 막혔던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리고 백두산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

한 분렬의 비극을 겪고 있는지도 장장 69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계적으로 갈라졌던 나라와 민족들이 통일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분열의 길로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찬란한 문화와 유구한 혁력을 자랑하는 우리 겨레가 아직도 분렬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수치가 아닐수 없으며 커다란 비극이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런데 2008년 남조선에

등장한 리영박보수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를 『폐쇄된 민족주의』라고 중상모독하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만 배여 달려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펼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무모한 동족대결소동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민족공조,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에 대해서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의 힘장에 철저히 서야 한다.

페는 물보다 진하지 않은 가. 그 누구도 우리의 통일을 우리 민족민족 바라지 않으며 『국제공조』나 『혈맹』을 떠들어대도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통일을 가져다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리치이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리고 2008년 남조선에 등장한 리영박보수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를 『폐쇄된 민족주의』라고 중상모독하면서 외세와의 『공조』에 만 배여 달려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펼침으로써 북남관계를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된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애합하여 갈라진 겨레의 혈맥을 다시 잊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철저히 설 때 북남간에 해결 못할 문제란 없으며 통일의 그날도 그만큼 앞

# 세 차계 나래치는 비약의 불바람

양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이 강산에 희망찬 새해 2014년의 진군의 발걸음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공화국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밝아온 새해는 어떤 해인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혁명의 해라고 밝혀 주시였다.

선군조선의 번영기, 여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며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의지가깃들어있다.

더 높은 비료생산으로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려는 홍남의 영예로운 기술자들과 비닐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는 2.8미터 롤린 합기업소의 노동자, 기술자들, 과학기술동아리의 날개를 활짝 펴

고 높은 과학기술성과를 내놓기 위하여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는 과학자들.

올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인 농업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서해지구 농촌들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가 하면 동해지구 농촌들에서 불고 있는 과학기술열풍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올해에 사회주의 문명국건설의 척후대, 전초기지로서의 영예를 더욱 빛내여 열의에 불타는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은 여러 대상들의 건축형성설계와 경제개발구설계, 우리식의 특

색 건축, 생태건축, 지능건축과 수자도시건설을 위한 연구사업, 합리적인 건식공법들과 세계적 수준의 움직임으로 투쟁의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간단히 대하여 강조하였다. 농촌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신년사의 첫번째 사업으로 농업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루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어디서나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비약의 불바람이 새차게 일어나고 있다.

새해를 맞으며 평양을 방문한 한 해외동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국땅 그 어디를 가보아도 비약의 불바람이 새차게 나래치고 있다. 영도자를 잘 받아들이 기어이 자기들의 힘으로 국력이 강하고 잘사는 나라를 일떠세우려는 조국인민들의 의지는 참으로 비상한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둉쳐 세계가 우리 보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군대와 인민의 드림없는 의지와 더불어 장엄한 투쟁의 해인 올해에 반드시 위대한 혁명이 이루어져 될 것이다.

본사기자 김준경

역사적인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전력증산의 불길 새차게 일으키고 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을 때마다 나에게는 이번엔 또 어떤 양상일가 하는 호기심이 버릇처럼 굳어져가고 있다.

한것은 최근 이 땅에 일어서는 건축물들마다 종전파달리 너무도 새롭고 특색있어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듯 한 생각을 갖기 위해 문이다.

얼마전 완공된 미림승마구락부를 찾았을 때에도 나는 그곳에 꾸려진 건축물들의 독특함에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건물외벽에 통나무장식을 하고 애완관련식과 천막休식장의 의자, 승마대와 방향표식판도 나무를 가지고 제작설치하여 현대미가 나면서도 자연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살아나도록 자연과 친숙

하게 꾸려졌다. 미림승마구락부에 들어서서 제일먼저 통나무로 쌓은것 같은 벽체를 만져보고 하나하나 살펴본것도 이것이 혹시 통나무건물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천막休식장의 문을 놓고는 천막을

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 가슴뜨겁게 새겨지게 하는 대중승마봉사기지이다.

문수물놀이장과 유희장, 은하파학자거리 등 조형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인

론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심한 령도의 손길이 어려여 있다고.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에 개장된 마식령스키장의 건축물을 들여다보니

는 감격에 넘친 목소리들, 바로 이 건물들의 착상은 물

을 만져보고 하나하나 살펴본것도 이것이 혹시 통나무건물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천막休

장을, 인공못, 인공폭포, 페로회복원, 목욕탕을 비롯하여 미림승마구락부에 꾸려진 모든것이 인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리용하기에도 편리하게 선 편리성, 후미학성의 견지에서 꾸려졌다.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개화기에 맞게 인민들이 사회주

적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념비적 창조물을 볼 때마다 나는 그곳 군들과 건설자들에게 물운 한다.

이 건물의 설계는 누가 했으며 시공주는 누구인가고,

그리면 그들에게서 들려오는 감격에 넘친 목소리들, 바로 이 건물들의 착상은 물

을 만져보고 하나하나 살펴본것도 이것이 혹시 통나무건물이 아닌가 하는 호기심 때문이었다.

설을 계기로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별의 아름을 떨어주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지적하였다.

설을 계기로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별의 아름을 떨어지게 하는 우리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할 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원래 흘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지난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당국의 불손한 태도와 적대행위로 하여 실현되

하였다.

여태까지는 남측당국이 우리에 의해 제기되어 실행단계에까지 갔다가 남측

# 2013년 공화국의 10대최우수체육선수 및 감독들

## 10 대 최 우 수 체 육 선 수

① 엄 윤 철(암록강체육단  
력기선수)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3개를 쟁취하고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였다.

② 김 정(4. 25체육단 탁구  
선수)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혼성 복식경기에서 금메달 1개, 국제공개탁구경기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아시아경기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금메달 1개, 단식 경기에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③ 려 은 희(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은



대회 최고득점자상을 수여  
받았다.

⑦ 김은국(4. 25체육단  
력기선수)

동아시아컵녀자축구선수  
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⑧ 조복향(기관차체육단  
력기선수)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3개, 세계력기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3개, 아시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  
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  
하였다.

⑨ 윤원철(4. 25체육단  
레스링선수)

세계레스リング선수권대회에  
서 금메달 1개, 세계군대남  
자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금

메달 1개, 아시아레스링선수  
권대회에서 동메달 1개, 국  
제레스링경기대회에서 동메  
달 1개를 쟁취하였다.

⑩ 설경(평양기계대학  
체육단 유술선수)

세계유술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아시아유술선수  
권대회에서 은메달 1개, 동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이 무덤은 안길과 안간으로  
이루어진 외간무덤으로서  
방향은 서쪽으로 약간 치우친  
남향이다.

발굴 당시 무덤의 봉분과

뚜껑들을 파괴되어 없어  
지고 무덤칸 벽의 일부가 지  
면우에 드러나 있었다.

안길의 크기는 남북길이  
2m, 동서너비 0.8m이며 현

구역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예기, 방어보다 많다. 수백  
년전부터 특수하게 미끈미끈  
한 점액(타우린)이 많은 미  
끄러지에 관심을 돌리고 간  
해독작용, 열물분비작용  
촉진, 영양실조회복, 입  
맛돌구기 등에 널리 써  
온 우리 선조들의 슬기  
와 지혜는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미끄러지의 식품 및 약  
재로서의 리용에서 문제  
점으로 된 것은 인체에서  
의 흡수율이 40%미만인  
것이다. 그것은 미끄러  
지가 고단백량물질비타  
민군 영양덩어리로서 사  
람의 소화호소로써 다  
분해 흡수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의학과학  
기술교류소에서 효소처  
리법을 리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미끄러지영  
양액』은 흡수율이 92~  
95%로서 치료효과가 매우  
높아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 10 대 최 우 수 감 독

녀자국가축구종합팀 책임  
감독

① 로현철(암록강체육단  
력기감독)

엄윤철선수의 담당감독

② 김준희(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려은희선수의 담당감독

③ 김용철(4. 25체육단  
레스링감독)

윤원철선수의 담당감독

④ 최농균(기관차체육단  
력기감독)

조복향선수의 담당감독

⑤ 김철웅(4. 25체육단  
탁구감독)

김혁봉선수의 담당감독

⑥ 김광민(4. 25체육단  
축구감독)

본사기자

예기, 방어보다 많다. 수백  
년전부터 특수하게 미끈미끈  
한 점액(타우린)이 많은 미  
끄러지에 관심을 돌리고 간  
해독작용, 열물분비작용  
촉진, 영양실조회복, 입  
맛돌구기 등에 널리 써  
온 우리 선조들의 슬기  
와 지혜는 참으로 감탄할  
만하다.

미끄러지의 식품 및 약  
재로서의 리용에서 문제  
점으로 된 것은 인체에서  
의 흡수율이 40%미만인  
것이다. 그것은 미끄러  
지가 고단백량물질비타  
민군 영양덩어리로서 사  
람의 소화호소로써 다  
분해 흡수 할 수 없기 때문  
이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 학대학 의학과학  
기술교류소에서 효소처  
리법을 리용하여 새롭게  
만들어낸 『미끄러지영  
양액』은 흡수율이 92~  
95%로서 치료효과가 매우  
높아 사용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 이소로이신과 같  
은 필수영양분들이 풍  
부히 들어있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많은 나라들에  
서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치  
료영양제로 쓰기 위한 연  
구를 네리 벌리고 있다.

미끄러지는 살고기  
100g당 단백질함량분석에  
서 고급어 죽이라고 불리  
우는 쏘가리에 못지 않으며  
비타민, 필수아미노산과 일  
반아미노산함량이 가물치,

본사기자

우리 민족은 수백년 전부터  
미끄러지를 영양강화 및 간계  
통질법치료에 널리 써왔다.

미끄러지가 다른 물고기들  
과 특별히 다른 것은 물결  
면에 타우린이라는 성분  
이 들어있는 미끄러지 한  
점액이 있는 것이다. 타우  
린은 열물분비가 잘되게  
하고 독풀이 작용이 세며  
간세포보호제 생능력이 높  
기 때문에 간보호와 질병  
치료에서 좋은 효과를 나  
타낸다.

최근에 미끄러지에 로  
화방지효과가 높은 로이  
신이나